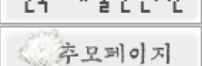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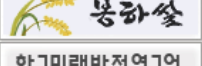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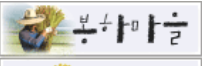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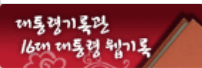


ID저장  
**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노무현이야기**

- ▶ 걸어온 길
- ▶ 말과 글
- ▶ 함께 생각해봅시다
- ▶ 추모게시판
- ▶ 좋은글과 영상



**▶ 말과 글**

관용의 한계는 누가 설정하는가?

조회수 : 16589  
등록일 : 2009.03.06 22:12

관용에 관하여 이야기를 꺼내놓고 보니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 나 이치는 말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전달할 수밖에 없는데, 생각이라는 것도, 말이라는 것도, 그 경계를 분명하게, 그리고 앞뒤의 모순이 없게 설명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관용의 한계’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보니 ‘관용의 한계는 누가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됩니다.

시민이 민주주의를 위하여 독재 권력과 투쟁할 때, 시민은 권력의 정당성에 대하여 관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권의 행사로 정당화 합니다. 관용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관용의 가치를 위하여 관용의 한계를 주장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권력은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리, 그리고 조용한 다수를 말하고 법치주의를 들고 나옵니다. 스스로 관용하지 않는 권력이 관용의 원리를 내세우고, 동시에 관용의 한계를 내세워 관용의 원리를 짓밟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1980년대 전반, 우리나라의 공안 검사실과 법정에서는 일상적으로 이런 우스꽝스러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7년 6월 항쟁으로 그 논쟁은 일단락되었으나 그 후에도 국가 보안법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관용의 원리는 누가 해석하고 누가 한계를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논리만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라마다 다른 민주주의의 현실과 문화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과 문화는 오랜 세월 그 나라 시민이 축적해 온 결단과 선택의 역사 위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문제들은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과 한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냥 민주주의의 본질과 한계로 설명하면 될 문제를 왜 굳이 ‘관용’이라는 어려운 말을 꺼내서 이야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관용’이라는 사상의 역사와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민주주의 사상의 요체를 보다 뚜렷하게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그 말이 필요하다 싶은 상황에 부딪혔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든 관용이라는 말이 느낌으로 딱 와 닿지도 않고, 실천하기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시민이든 권력자이든, 가치와 이해관계, 사고방식이 충돌하는 모든 경우에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관용의 원리를 적용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가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극복하고 보다 통합되고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큰 밑천이 될 것입니다.

이제 관용에 관하여 해명이 필요한 이야기는 대강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모두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빠른 메뉴**

- 글로벌네트워크
- 부산지역위
- 광주지역위
- 제주지역위
- 전북지역위
- 대구·경북지역위
- 전남지역위
- 대전·충남지역위
- 동호회
- 봉하 오는 방법
- 모역 안내

9  
이달의  
비밀화면  
오늘 하루 열지않음

총평 83개

BABO철이 2009.03.06 22:14

네 노무현 대통령님 항상 좋은글 감사합니다..

원더우먼 2009.03.06 22:14

반갑습니다,,, 아~~~... 좋아라... ㅎㅎㅎ

고도를기다리며{김현 2009.03.06 22:15

일등! 가문의 영광 (예공 쓰구나니 5등이네 째....)

차칸늑대 2009.03.06 22:16

대통령님~~~ㅠ.ㅠ

현진 2009.03.06 22:17

^^..  
아공..~~~  
대통령님..~  
오늘 새로 가입하신 회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화기애애 한지요..~  
보십시오..~  
아래쪽에 글 들어요..  
너무나 기분좋은 밤입니다..  
노공이산님도 즐거워하시고 행복한밤 되십시오..  
건강하셔야 합니다..  
꾸벅..

목은김치 2009.03.06 22:17

오래동안 컴앞에앉아 노니 이런황제 를 ~~~~

보미니&성우 2009.03.06 22:17

그러게요 노공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먹고 살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  
다^^\*

선한사람 2009.03.06 22:19

오늘 글이 올라올것 같은 예감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글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작은힘이나마 꼭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보고싶습니다~~

냄비뚜경 2009.03.06 22:20

대통령님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전 그냥 쉽게 우리말로 강 '너그러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고단하신편데 편히 주무십시오.

발목잡이 2009.03.06 22:20

.

통일 2009.03.06 22:24

^^ ㄱ ㄱ ㄱ ^^

목은김치 2009.03.06 22:25

노공이산님의 관용이라는 숙제가 이제답을 찾은것같네요

더욱 배우고 공부하여 민주주의란것을 실천하는 서민이될것을 약속하며

다음 숙제의 화두를 주시기간절합니다 ^^\*

소박한 들꽃 2009.03.06 22:26

반가움 친근감 공부도 많이하는 좋은 곳 사람사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좋은신 대통령님.. 겸손 하실수록 더욱더 높아 보이시는 분.

대실골 2009.03.06 22:26

관용에 대해서  
학습 열심히 하게 하십니다.  
저 요즘 강력집착제 온 몸에 칠하고  
게시판에 진을 칩니다. 대통령님.

꼬맹이 2009.03.06 22:27

학~~~~!  
방긋님 나두 봤는데  
..주주의의 본질과<=오타 나셨어요..(^)...마 대충 넘어 가지지 그 끝은 성격 하고는...ㅋㅋ  
와~~수정해 놓으셨네요...

역시 올 \*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다

붕어마니 2009.03.06 22:28

관용..  
어렵지만 다시한번 이해해 보려 합니다~

방긋 2009.03.06 22:32

고맙습니다..노짱님(꾸벅)

kjj7011 2009.03.06 22:34

저 같은 경우에는 감히 실천할 엄두는 못내구요.  
관용이란 의미를 좀더 깊게 생각할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코발트 블루 2009.03.06 22:34

대통령님 관용은 생각보다 더 훨씬  
실천하기란 힘들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노력한다면 복잡한 사회적인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 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좋은말씀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山中나그네 2009.03.06 22:35

가르침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올려주신 글 읽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용하고 쓰는말들을 찾아봤습니다,

배려= 보살피 주려고 마음을 씀  
용인=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음  
관용=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포용=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 ‘  
감쌌’, ‘덮어 줌’으로 순화.  
용서= 지은 죄나 잘못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 줌

이러한 말들이 일상에서 흔히 혼용된 관용으로 쓰인듯 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꾸벅...

청갈매기 2009.03.06 22:36

감사드립니다,다시금 새겨두고 가르침데로 행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발목잡이 2009.03.06 22:38

노무현 전 대통령 현실정치에 뛰어드나?  
시민이 민주주의를 위하여 독재 권력과 투쟁할 때, 시민은 권력의 정당성에 대하여 관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권의 행사로 정당화 합니다. 관용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관용의 가치를 위하여 관용의 한계를 주장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글올려~  
내일아침 신문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관용이 중요하기에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가시면서 가르쳐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보미니&성우 2009.03.06 22:41

우리 보민이가 왜이리 댓글이 많은거야라고 물어서 ㅎㅎ  
노무현 대통령님 글보고 댓글쓰는거다 말했지요  
읽어 보더니 뭇말인겨~~~ 그래요  
다음에 노짱님 뵈면 여쭙봐라~~ 그랬어요 ^^\*

대륙 2009.03.06 22:51

옳고 그름이, 서로 다름이 없어지는 3차원의 세계.  
옳고 그름이, 서로 다름이 통하는 4차원의 세계인 '중도'.  
그 보다 어려운 '관용'을 실천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모순과 대립을 떠난 세상, 해안을 여는 세상을 위해  
제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봄은 왔는데... 무관심을 알아차린 듯, 꽃샘추위로 앙탈을 부립니다.

그저 대통령님내외분의 건안하심을 비읍니다.  
살 맛 납니다^^\*

찬밥연대 2009.03.06 22:51

설마 한동안 안오시는건 아니시죠?  
무조건,언제나 건강하셔야 합니다^^  
!!!!!!!!!!!!노!무!현!짱!!!!!!!!!!!!

정도행보 2009.03.06 22:52

오늘도 어김없이 공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늘...건강 하시기 바랍니다~!!(꾸벅)

꽃본 2009.03.06 22:58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진영지기 2009.03.06 23:00

계절은 봄인데....

저의 마음은 아직도 추운 겨울입니다.

따뜻한 봄이 빨리오기를...

칼의 노래 2009.03.06 23:01

(으가가, 또 오셨다!)

계게는 말씀하신 '관용'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기에 쉽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은 더 선명해지고 더 머리에 찼습니다. 그래서 터질라!고 해요.  
마감이 1차 마감이시겠쥬? 다음을 기대하겠습니다.

우수마발 2009.03.06 23:06

우리 사회가 너무 자본주의의 이분법적 사고가 짙게 깔려 있어서 민주주의의 미덕인 관용의 폭이 제한을 받고 있는게 아닌지요..

대통령님! 시간이 나시면 꼭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고 있던 바에 대해 글 좀 써 주십시오...

산비둘기 2009.03.06 23:14

관용,

이론적으론 난해한 듯 하나, 실천적으론 양심만 살아있다면 실키고도 간결한 화두...

마음 깊이 잘 새기겠습니다.

회원님이 올려놓으신 '차마고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도, 음악도,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기에는 충분한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민중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봐주시고 깨우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모쪼록 권양숙 여사님과 더불어 건강하시고 평안한 봄날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笑而不答 2009.03.06 23:23

새겨 들겠습니다 ....쨈쨈

사진기자 2009.03.06 23:34

대통령님의 글은 읽고 또 읽고 다행이 오늘은 네번만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ㅋ 새겨 들겠습니다~

대통령님의 연설 영상에서 목소리와 글 그리고 따뜻한 얼굴에서 진심이 바로 들러지기에 한방에 이해가 되는데... ㅋ 한달에 한번쯤 영상 편지 만들어 주심 어떨지? 그래야 무식한 박홍 총장씨 지적 수준도 향상 도움 될것 같고...

권양숙 여사님 빠른 건강 회복을 바랍니다^^

여기서 권양숙 여사님의 인사 정도의 댓글이라도 읽어 보는것이 소원 입니다-

digna 2009.03.06 23:38

관용의 기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물의 주체와 객체를 어디에 두느냐 .. 나,너

과연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누구일까?

참으로 난해한 기준입니다.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기준입니다.

공주님처럼 2009.03.06 23:42

권장.. 빨리회복하시기를바랍니다.

여기서 권장의 글을한번보고싶습니다.권양숙여사님..이름석자를 보고싶습니다.

난남자 2009.03.06 23:49

대통령님..

소통은 혼자 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사님도 글 좀 올려 주시지쥬...^^ ( 꾸벅 )

명금이 2009.03.06 23:59

오늘 가입했는데, 오늘 대통령님의 글을 볼수 있다는게 넘 신기하고, 영광입니다..많은 언론이 대통령님을 힘들게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모든것 뒤로하고 편함 밤 되세요...!!

원질마위 2009.03.07 00:03

허리는 좀 괜찮아지셨는지 걱정됩니다.

오늘 사진을 보니 여사님도 발이 불편하시던데 어떠하신지요?

저도 하루 여러시간을 컵을 하다보니 어깨와 손목 허리도 아프지만, 요즘은 의료용 보조기구도 잘나와서 다행입니다. 전기코드만 꼽으면 되는 편리한 부위별 찜질기가 있더군요. 한 번 사용해 보면 좋을 듯한데..

언제나 두 분의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비단장시 2009.03.07 00:14

그저 건강만 하시구요

어서 농사지으러나오셔야쥬~~ 봄이 왔잖아요~~~

수니서니 2009.03.07 00:18

늦은시간 혹 노공님의 글이 있나 기대하며 들어왔는데...

지금 참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노공님의 회고록도 여기에 연재해 주시면 좋겠어요.

꼭꼭꼭이요.

노공님 여사님 사랑합니다.

마당 2009.03.07 00:19

감사합니다. ㅎㅎㅎ

digna 2009.03.07 00:20

다른 주제로 또 글 올려 주실 거죠?  
저희에게 숙제 또 주실거죠?  
다음 글을 학습고대하며 기다립니다. 노짱님

지금/여기 2009.03.07 00:28

대통령님의 글을 자주 읽고 삶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르(블루펑크) 2009.03.07 00:34

노공이산님  
노공이산님의 글을 보면서 오랜 기간 동안 사회 통합에 관한 고민을 해오신 흔적을 보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사회적 통합과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용이란 화두를 꺼내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노공이산님의 글을 읽으면 명쾌하고 쉬운 글도 있지만...  
상당히 사고를 깊게 하시는구나 하는 인상도 받습니다.  
그래서 어쩔텐 글 의미 하나하나를 풀어 가면서 읽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공이산님은 그리 생각지 않으실런지 모르겠지만...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봤을때 제게 있어서 노공이산님의 사고는 큰 우주 같습니다.  
어느날 지구를 발견해서 기뻐하고 있는데 그 옆에 달이 지구의 바닷물에 영향을 주고 지구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중심엔 큰 태양이 있고.. 그를 중심으로 많은 행성이 공전하고 있는... 이게 다인가 생각했는데... 더 넓게 확장되는 것 같은 그래서 어쩔텐 큰 흐름이 보이다가도 또 어쩔텐 큰 흐름을 놓치는 ...

이리 오버해서 해석하는 이유는  
제가 아직 철이 없고 세상 보는 견문이 좁은 탓이겠지요?\*^^\*

어제의 글과 오늘의 글이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노공이산님의 동서화합, 사회 통합, 갈등해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님의 오랜 화두를 엿보는 것 같은 ...  
노공이산님... 사랑합니다.

항상노력하자 2009.03.07 00:42

노짱님!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정말 감사 합니다.

터진후라이 2009.03.07 01:00

폐 늙은 밥입니다. 전 아들과 함께 친정에 있습니다.  
이전에는..매주 금요일이면..우리 둘다..  
(윤도현의 러브레터)열혈팬이었는데..  
아들은 지금 페퍼민트란 뮤직프로그램에 몰두해 있네요.  
주말인 내일은..  
새 참고서도 구입할겸..같이 서점에 들리기로 했어요.  
(관용과열린사회)<- 이 책을 찾아 볼겁니다.  
이 도서를 정독하고 나면..좀 더 이해가 쉽게  
와 달아 주기를 기대 하고 싶어서..^^;

노공이산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책을 저도 취한다 상상하니  
그래서..미리부터 마음이 설레입니다.

짹짹이 또 뵈수 있는거죠.  
..이것으로 마감 하겠습니다...가슴이 철렁..^^;  
보고 싶습니다.

푸른소나무@ 2009.03.07 01:11

좋은글 감사합니다....  
늘 배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녹차 한 잔 2009.03.07 01:31

노대통령님 글 자주 올리시니까...

님 행복해져요... ㅋ

skkim4980@ 2009.03.07 01:46

다수당의 권력은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 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이 되고 횡포가 되는 상황에서  
서양식 유래를 따르는 본질적 의미의 '관용'의 자세가 배려와 존중으로 뒷받침되어  
대화과 타협을 통한 최선의 합의점을 이루어 가라는  
주문으로 해석합니다.  
약점과 한계점이 상당한 다수결의 원칙이 최선인양 밀어 부치기 하는  
오만함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둘리엄마 2009.03.07 02:11

처해있는 시대에 따라 민주주의의 본질이 왜곡될수 있음은 이미 겪어보았습니다.  
민주주의의 한계(?)와 관용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야할지....  
아직도 현실은 답답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꽃향기 2009.03.07 02:17

글을 읽고 또 읽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정답은 있지만 해결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큰 의미에서  
민주주의란 정신은, 독재에 항거하는 정신은, 어떤 교육적인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방법이나 절차는 학습에 의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일테지만요.

그러니 독재에 저항하는 시민의 투쟁은 노대통령님 말씀처럼 관용의 한계에 넘어서 상황이라는 것이겠죠.  
여기에 분명한 전제는 '독재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정당성과 합의성이 바탕이 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론을 도출하고 합의하는 과정들에 '관용'이라는 것이 그 정의가 발현되고 필요성을 갖는 것이지,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권력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관용'이라는 의미는 참으로 갖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독재권력자들이 내세우는 '관용'이라는 의미는 그들 권력의 정당성과 합리화를 위한 꺾테기로 받아들일 뿐이구요.

누가 설정할 것인가에 따른 문제 이전에,  
누가 관용이라는 것을 먼저 파괴했는지 무시했는지에 대한 문제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용을 누가 설정할 것인가에 따른 주체는 노대통령님 말씀처럼 시민이든 권력자이든, 가치와 이해관계, 사고방식이 충돌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깜깜한 밤하늘같은 어두운 대한민국의 현실이 서글퍼집니다.  
정말\*10000이 뵈고 싶습니다.

내마음 2009.03.07 05:36

어제밤에도 살포시 다녀가셨군요... 잘 새겨들겠습니다

과란노을 2009.03.07 05:39

관용 씨리즈 땀서 저도 신났고, 꼬맹이님도 신나시겠다.ㅋㅋ 로또는 관용이 아닙니다.ㅋㅋ 부담되지 않게 그만하세요!!ㅋㅋ

하늘an바람 2009.03.07 06:28

깊고 깊은 말씀 언제나 되세기며 사랑하겠습니다

하늘색 꿈... 2009.03.07 08:00

좋은말씀 깊이 새겨 들도록 하겠습니다.

digna 2009.03.07 08:02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또 다시 읽고 또 읽어 봅니다.  
행동으로 실천하기에 상당히 힘들 겠지만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다음번에 어떤 주제를 던져 주실 지 궁금하옵니다.

터진후라이 2009.03.07 08:18

digna님 저도요.  
어젯밤은..하도 눈꺼풀이 내려 앉는 와중에  
(실은..남동생이 취침을 하는 방이라..컴 사용이 자유롭지 못함)  
살짝..ON을 해서 순찰 돌러 왔거든요.  
그래서..이 마지막 타이틀을..찬찬히 새기지 못했는데..  
다시보니..정답이 이곳에 다 정리가 되어 있다 싶은게  
명쾌하게 습득이 되고 있습니다.  
댓글들을..잘 살펴보는 것도..이해력을 도우는데,  
기여를 해 준답니다.  
여러분들도..찬찬히 곱씹어 반복 정독하고..댓글들 중에서도  
배우고..그렇게 해보세요..^^

달피인 2009.03.07 08:27

관용이란쓰임새가 좀 묘하네요

도독에 관용과 강도에관용도 관용이라는 표현이 적적한지요-----

didfks 2009.03.07 08:38

노무현대통령님, 전 저녁에는 컴퓨터를 할 수가 없어요.  
시택이 대구, 한나라당 열성, 오직 조선...사실, 전 나름대로 투쟁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낮에 올려주시면 저도 댓글 1등 할수 있는데...  
아이들과 남편이 모두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공허함속에 찾아오는 이 자유가 향기가 되어 주위를 맴도는거 같아요.  
탄핵때,꼬마가 7살이였죠.  
광화문에 가기전에 민주주의를 설명해주었는데...  
요즘 학교에서 친구들과 민주주의에 대해 자주 얘기를 하나봐요.  
교감선생님이 우리아들보고 엄마가 노빠니하셨다면서...  
물론"저도, 노무현 할아버지 존경해요"했다고 하네요.  
언젠가 하신 말씀처럼 노빠의 피는 영원히 이어지겠죠.  
히히히히. 관용. 많이 생각하고 많이 몸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난 2009.03.07 08:57

근데 왜 박관용은(전국회의장)은 왜 관용을 모를까요  
에휴휴 이름이 아깝다

국가와민족을위해 2009.03.07 10:15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들과 마음대로 재해석하여 악의적으로 퍼트리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노무현대통령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확하다고 자부하는데요, 노공이산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수고한 것이 없는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들으니 혹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봅니다. 노짱님!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매그놀리아 2009.03.07 11:38

많은걸 깨우쳐 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늘 새기겠습니다..

디탕동 2009.03.07 11:57

"~~현실과 문화는 오랜세월 그나라 시민이 축적해온 결단과 선택의 역사위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여...우리들은(나는) 지난시기 무엇을 결단하고 선택했으며,  
내 존재의 토대인 '공동체'의 결단과 선택은 어떤 것이었나...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결단하고 선택 할 것인가...  
개개인이 '역사의진보'를 담보하는 결단과선택을 이끌어줄 '세력'과'리더쉽'은 어떻게 만들것인가...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지말고,그러나 즐기면서(좌절하면 변절하니까)투쟁합시다.

술가실 2009.03.07 13:07

관용이라는 말이 느낌으로 딱 와 닿지도 않고, 실천하기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넵~~어려워서 잘모르겠습니다.(무식해서인가???)

예의지지자 2009.03.07 16:26

존경하는 노 대통령님.

좋은 말씀 잘 보았습니다.

저는 관용과 불관용의 설정주체는 당연히 국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국민을 대리하는 각 정치세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관용과 불관용에 있어서는 그 설정주체보다는 언제(시기)와 어디까지(범위)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관용, 즉 관용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면 관용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관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불관용의 시기에 대하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추상적 이념단일체인 백성의 보이지 않는 총의에 의하여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결정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아 백성의 뜻이 이러했구나..하고 사후에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사이에 각 정치주체는 지금이 관용할 때이다. 또는 아니 다를 각자의 판단에 따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통찰력이 뛰어난 정치주체는 그 시기를 비교적 정확히 잘 읽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관용과 불관용을 시기를 잘 읽어내는 정치주체는 백성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정치적 관용과 불관용이란 일종의 정치적 진퇴의 문제이고 그러한 시기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도덕영역에 포함되는 것이니, 어떠한 뚜렷한 시기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관용의 범위나 기준에 대하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이 기준이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적 기본권 조항 및 사회권적 기본권 조항, 실질적 법치주의 조항, 삼권분립 조항,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 조항 등. 이러한 명시적으로 합의된 조항에 반하는 기본권침해와 헌법과괴 행위를 하는 권력담당자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불관용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불관용은 항상 어떠한 침해가 있을 때 문제되는 것이고 이러한 국민 개인의 권리침해와 사회전체의 평화질서를 보장하고 수호하기 위하여 우리의 위대한 헌법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김수환 추기경의 문제에 있어서도 김수환 추기경이 비록 수구적인 발언을 하셨지만, 그것은 헌법상 자신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이니 관용의 범위에 들어가리라 봅니다. 김 추기경은 사상의 자유라는 자신의 정신적 자유를 이유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을 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누구를 감옥에 가두지도 않았고, 다른 생각을 말하지 못하게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덕영역에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에 의한 도덕적 비난이나 평가도 존중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그 주장에 근거가 있으면 설득력을 얻겠죠. 저는 김 추기경의 발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그리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 입장이고요. 사람은 전체적으로 평가해야하며 김 추기경의 민주화에 대한 큰 공헌은 그런 자갈한 트집으로 전체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사회통합을 걱정하는 노 대통령님의 마음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돈나무 2009.03.07 16:41

노짱님 열정이 느껴져 참 좋습니다.

미네랄밥 2009.03.07 16:43

노짱님 보고싶어요.

가행수 2009.03.07 17:39

노공님.. 감사합니다..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게 민주주의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노공님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soothe 2009.03.07 18:17

폴데랑스의 본고장 프랑스에서는 관용이란 것이 무관심과 귀찮음으로 종종 sarcasm의 대상이 되곤합니다. 꼼꼼히 생각해보면 그 뜻은 다르지만 표출되는것은 관용이나 귀찮음, 무관심은 별 차이 없어보일지도 모릅니다.

한국같이 서로 참견하기 좋아하고, 좋은 싫든 서로 부대껴서 살아가는 나라에겐 관용은 이해되어지기조차 힘든 덕목입니다. 개인주의의 발전이 우선 선행되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현재와미래 2009.03.07 20:00

민주주의 권력이 시민으로부터 나오니까 한계도 시민들이 정하는거 아닐까요.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이견 된다, 이견 안된다는 그런 생각들은 다들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회의 전통이나, 관습, 문화적 특징도 반영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노대통령님 글 덕분에 제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현 시국도 한번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관용을 제대로 실천하기에는 그릇이 너무 작은것 같습니다. 말도 안되는 글들을 보면 아직도 분이 치밀어 오르는걸 보면 말입니다. 저는 제가 꽤나 아량이 크다고 생각해왔는데, 노대통령님 글을 읽고 생각해보니, 저는 그저 나와 다른 생각들을 애써 외면해온 것일 뿐이었습니다. 제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진정한 관용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도 아줌니 2009.03.07 22:29

관용 설명 감사합니다.(.)오묘하기도 해요 ,관용 지혜롭게 슬기롭게 사용해야겠어요, 편한하신 밤 되세요 .(.)...

rudtr2 2009.03.07 22:51

관용이라는 말을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생각해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잘주무세요^^

똥똥이 2009.03.07 23:15

관용...  
아직 제게는 멀기만 한 단어이긴 하지만...  
'나'하나만으로 관용을 베풀어서 되는 사회는 아직 멀고 먼것만 같습니다.  
문제를 앞두고 있을때, 그 문제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관용을 먼저 베풀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관용을 베풀기만을 바라는 듯...아직도 먼저 베풀지 못하고 받기만 할 줄 아는 저는 아무래도 거지근성이 있나봅니다.ㅋㅋㅋ

앞으로 열심히 배워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살아가고 존경합니다...

雲南cafei 2009.03.08 06:19

대통령님의 글을 읽으면 복잡했던 머리가 어느정도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대통령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그걸 슬기롭게 극복하시는 모습이 또한 정말 멋지게 느껴집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nr12 2009.03.08 10:38

용서의 바닥에 깔려 있는것이 진정한 연민인가. 똥은 피하고 보자는 귀차니즘.혹은 무의식적인 두려움의 발로인가에 따라서도 관용은 일부 정의될 수 있겠죠. 즉 똑같은 반응도 대통령은 관용이지만...전 비겁한 것일 수도..

시인의노래 2009.03.10 09:14

건강하세요.

조동관 2009.03.10 18:10

예수 담으로 닮고 싶은 분이 노짱님이십니다.님께서 쓰신 글을 읽을때마다 내가 왜 그토록 님을 좋아하는지 더욱 선명해집니다. 님이시여~~사랑합니다!!!!!!

명민킹왕짱무현 2009.03.14 22:12

킹왕짱....노무현대통령님^^  
알라뵤~~~~~

tmfg18652 2009.03.19 20:08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도움이다 2009.04.14 10:48

안녕하세요...관용이없이 화합이 있을수는 없겠지요 ...관용이없는 정치는 원수를 양산할뿐입니다..대통령님 재임기간에 수없이 원망하고 욕했던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경솔하고 짤았습니다 ... 나라를 경영했던 국민의 책임자였던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사생활이 발가벗겨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전직 대통령이 아닌 한시대를 책임지었던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십시오 잘못된것은 바로잡아야합니다 힘을내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고이 2009.05.29 03:49

지금 이렇게 글을 올린다 한들 보지 못하신다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지금이라도 이 많은 글들을 읽으시며 뿌듯해하실 것 같은데  
그럴 수 없다는 현실에 가슴이 멍멍해집니다.  
조금만 더 일찍 이렇게 제 마음을 담아 글을 썼다면  
그리고 당신도 보셨다면 힘듦도 덜하셨을거란 아쉬움이 가득한 후회를 해봅니다.  
지금에서야 당신께서 남기셨던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눈물만 나더군요.  
일국의 대통령이신 분이 인터넷이라는 매개로 국민들과 소통하며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울리는 분이 몇이나 될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따뜻한 분이셨는데..  
마음으로 안아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전히 사진을 보면 항상 같은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어떤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지..  
그 곳에서는 부디 편안하게 미소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라이어펀트2 2009.05.31 10:18

국민 모두가 관용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고 수용할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져 있다면  
한계를 설정하는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되어져있는 사람들에게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훌륭한 도구를  
가지고 있고 활용할줄 아니까요.

얕은 지식으로 판단해 보건대,,역사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관용의 한계설정에는 시대  
의기류를 반영하는 커다란 event의 발생으로 시민 스스로의 자각으로 이루어질수도  
있고,,(동학운동, 민주화, 6.10항쟁,4.19등)  
사회기득권층에 의해서 결정되어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같은 사회에서도 민주주의는 권력의 변화에 따라 진퇴를 거듭합니다.  
다만,,관용의 한계설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계설정 에 관한 국민의 관용,  
즉 동의나 묵인을 얼마만큼 얻어낼수 있는가가 한계설정의 관건이 될수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쉽지 않은것이 인간은 그리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 한계  
를 설정하고 행동하는 경우보다는 이해관계나 경제문제, 지역감정, 혹은 이기적인  
감정과 같은 저극히 주관적인 가치로써 관용의 기준을 설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통합에 따른 자연스런 발전보다는 항시 갈등과 분열이 반복되고 증폭되어지는 것은 아닌지...

제가 아는 어느 신경정신과 의사가 이런말을 했던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진보와 보수에 관한 관심이 남들보다 유달라서 환자를 상대로 이러한 성향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더랍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인간의 성향을 결정짓는 것은 교육이나 주변환경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유전구조에서 결정되어진다는 논리였습니다.  
교육과 미디어 주변환경등은 잠자고 있는 유전적성향을 깨우게 하는 역할뿐이라는 말을 하더군여.

시간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교육이나 미디어, 인터넷등이 한 방법인것 같지만,,이또한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볼때는 쉽게 해결될 문  
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한나라의 진보주의 발전에 중요한 결정요소는 국민성도 큰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성은 곧 핏줄이고 핏줄이 바뀌기 위해선 세대가 변해야 하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여부는 미지수일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댓글이 쓰잘데기 없는 글인걸 잘 알고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책을 보시고 연구를 하실 노짱님을 생각하며 말동무라도 되어드리고 싶어 이렇게 늦게나마 댓글을 달아봅니다.  
저희는 항상 여기에 있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좋은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 라이어펀트 올림 -

성터 2009.06.02 03:20

살아 생전 노짱님의 피끓는 대선 출마 연설을 다시 보며 또 눈물 흘립니다.  
3년반 남았습니다. 잊지 맙시다.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3&articleId=38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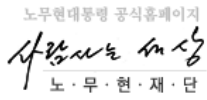
흔평쓰기

등록

## 목록

NO	제목	조회	글쓴이	등록일
38	[진보주의 글] 이렇게 가보면 어떨까요? (2009.4.7 노무현) (36)	27325	운영자	2009.07.22
37	[진보주의 글] 줄거리 4차 초안입니다. 이 마당에서 토론을 해봅시다 (2009.3.20 노무현) (8)	4534	운영자	2009.07.22
36	[진보주의 글] 전체 줄거리 제3차 초안입니다. 토론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2009.2.8 노무현) (6)	2945	운영자	2009.07.22
35	[진보주의 글] 전체 줄거리 구성에 관하여 2차 초안 (2009.1.27 노무현) (4)	2706	운영자	2009.07.22
34	[진보주의 글] 전체 줄거리 구성 1차 초안입니다 (2009.1.23 노무현) (27)	13715	운영자	2009.07.22
33	'사람세상' 홈페이지를 달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1392)	387868	노무현	2009.04.22
32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 (1056)	289429	노무현	2009.04.21
31	강 금원이라는 사람 (1522)	354982	노무현	2009.04.17
30	부탁드립니다 (971)	157178	노무현	2009.04.08
29	사과드립니다. (1246)	186147	노무현	2009.04.07
28	좋은 글 하나 추천 드립니다. (122)	130872	노무현	2009.03.19
27	G20 재무장관회의 기사를 보고 (97)	56636	노무현	2009.03.15
26	상대주의와 보편적 가치 (107)	26086	노무현	2009.03.13
25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무엇인가요? (83)	30610	노무현	2009.03.12
24	토론마당 하나 소개합니다. (71)	26684	노무현	2009.03.07

현재글	관용의 한계는 누가 설정하는가? (83)	16589	노무현	2009.03.06
22	관용은 용서와 다릅니다. (164)	52302	노무현	2009.03.05
21	연속극 끝났는데... (271)	119268	노무현	2009.03.05
20	정치하지 마라. (275)	109605	노무현	2009.03.04
19	민주주의와 관용과 상대주의 (192)	28455	노무현	2009.03.01



우 (121-89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8-22, 서문빌딩 2층 | 전화 1688-0523 | 팩스 02-713-1219 | 이사장 이병환 | 사업자번호 105-82-17699  
COPYRIGHT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ALL RIGHTS RESERVED. | 이메일 knowhow@knowhow.or.kr 노무현재단 찾아오시는 길

우 (621-803)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93 | 전화 055-344-1004 | 팩스 055-344-1007 | 이사장 권양숙 | 사업자번호 615-82-09681  
COPYRIGHT © 재단법인 아름다운봄하 ALL RIGHTS RESERVED. 문화재단 찾아오시는 길

문의전화 회원·홈페이지·저작권 1688-0523 / 해외전용(직통) 070-7931-0535 / 요약·생각·자원봉사 055-344-1302 / 봉하장터 1589-1946 / 생가센터 055-344-1005